**연중 제15주일(2018년 7월 1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부르심’과 ‘파견’입니다. 1독서에서 양을 치며 사는 목동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로 살게 됩니다. 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파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모두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주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과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들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면 웬지 딴사람들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 ‘부르심을 받고 파견된 제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런 단어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자나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로 파견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표현이지 나 같이 평범하게 사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좀 젊고 능력있는 사람이나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은퇴도 했고, 아니면,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성당을 위해서 파견되고 봉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와 더불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맡게 복음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작은 이 공동체도 사실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시는 분, 성가대 하시는 분, 복사 서시는 분, 독서하시는 분, 그리고 미사 후에 친교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시는 분, 등등... 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죽지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활동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계시기만 해도 사실 아주 소중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음과 행복을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하는 것 같지만, 이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커다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사람들이 모두 아주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남녀 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지팡이를 지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하십니다. 음식도, 여행 보따리도, 심지어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느 곳이든 너희들을 믿지않는다면, 그곳을 떠날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지팡이를 갖고, 둘 씩 짝지어서, 그리고 떠날때는 미련없이 떠나라. 세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지팡이는 꼭 지니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험난하고 힘든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걸어갈 힘이 없거나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줄 그리고 몸을 지탱해줄 지팡이가 꼭 필요합니다. 몸을 의지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앙, 이것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줄 지팡이 입니다. 영적인 지팡이 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가 8년전 미국에 처음 올때,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오면서, 그냥 하느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별 걱정없이 왔습니다. 그냥 옷과 책이 든 트렁크 두개 달랑... 진짜로 하느님께서 필요한 모든것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지팡이, 신앙의 지팡이 이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첫번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두번째 가르침은, 둘씩 짝지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잘났다고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너그럽게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웃으면서 손 잡고 함께 가야 인생 여정, 신앙 여정 무사히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번째 가르침은, 어느 곳이든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곳이면, 그곳을 떠날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한 곳에만 집착 하고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미련없이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고장,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저하거나, 한 곳에 집착하거나, 멈추지 말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사제 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곳에 잘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곳은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곳이고 또 여기서 제가 할일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거나 주저하지말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바로 하느님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참된 사랑과 기쁨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